

• 남자가 보는 미인대회

의지 + 돈 + 아름다운 얼굴의 황금률 = 미인자격증

현재 한국에서 열리는 각종 '예쁜 여자 뽑기 대회'의 수는 얼마나 될까? 1년은 365일, 크고 작은 대회를 모두 세어보면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를 비롯해 최근 생긴 '미세스 코리아 선발대회'까지 1백개 이상이라고 한다. 달리 말하면, 3일마다 한 번 꼴로 '예쁜 여자 고르기'가 행해진다는 것. 그런 대회들을 통해 배출된 예쁜 여자들은 다양한 수식어가 붙은 아름다움의 상징이 된다. 또한 골라진 여자는 매스 미디어의 전면을 화려하게 장식하며 이 시대의 영웅이 된다.

아! 수많은 아름다움들. 오늘의 한국이란 아름다움이 넘쳐 풍수를 이루는 곳이다. 이 아름다움이 넘쳐흐르는 땅에 사는 우리 모두는 당연히 행복해야 한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가? 만일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당신은 아름다움을 모르는 무감각한 사람으로 지탄받아 마땅하다. 지탄이 두려우면 적어도 행복한 척이라도 하라. 그리고 행복하려면 아름다워져라!

작금 한국의 모든 여성들은 태어나면서 아름다움의 의무를 부여받는다. 만일 당신이 아름답지 않다면 당신은 유용한 방법이 없다. 치료의 기술에서 발달해 그 목적을 전도한 미용성형수술(Cosmetic Surgery)

이 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아름다워져라. 남녀평등의 시대, 마스크의 전면을 장식할 당신의 미래를 위하여. 기준이 없다고, 아니다. 아름다움의 기준은 있다.

이제 누구나 말해온 것처럼 아름다움은 시대와 지역마다 다르다고 할수 없다. 완벽한 얼굴, 20년 간의 노력 끝에 완벽한 미인(美人)의 전형을 수치료 산출해 낸 마르콥트의 마스크가 준비되어 있다. 세상의 수많은 성형외과들 중 최초로 마르콥트는 아름다운 얼굴의 황금률을 계산해 놓았다.

완벽한 얼굴은 이제 당신의 의지와 충분한 경제력만 있다면 당신의 것이다. 마스크를 써라. 그러면 당신은 아름다워진다. 누가 이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까? 어쩌면 우리는 모두 가면을 쓰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면의 세상으로 가고 있다. 이브가 루시퍼의 달콤한 혀에 녹아 선악과를 취한 이후, 인간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가면쓰기의 유혹은 언제나 있어 왔다. 당신은 20세기 최고의 흥행작 '스타워즈'의 다스베이더를 기억하는가. 그 완벽한 가면을 말이 다. 저명한 신화학자 조셉 캠벨은 다스 베이더의 가면을 "현대인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진짜 괴물스런 힘을 상징한다"고 지적하며, "그의 가면이 벗겨졌을 때, 우리의 눈에는 아직 완전한 개인으로 발달하지 못한 미숙한 인간이 보일 것이다. 말하자면 분화가 다 되지 않아 어쩔지 낯설고 불쌍해 보이는 얼굴일 것"이라고 갈파했다.

다시 한 번의 물음. 당신은 가면을 쓰겠는가? 만일 당신이 거부한다면 가면들과의 전쟁이 시작하라. 가면들과의 싸움에서 당신의 무기는 무엇인가? 과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는 다시 영화 '스타워즈'로 돌아가자. 그 마지막 싸움 장면을 기억하라. 절체절명의 순간 스카이워커의 귀에 케노비의 음성이 들려온다. "컴퓨터를 끄고, 기계를 끄고 네 느낌에 따라 네 마음대로 하라." 인간의 아름다움까지 상품화한 저 천박한 가면의 전략을 물리치기 위해, 그 음침한 세력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 우리의 가슴에 묻혀있는 저 인간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상업 자본에 의해 조작된 아름다운 영웅의 신화를 부수고 우리의 손아귀에 진정한 아름다움을 움켜쥐기 위해, 수치료 프로그램된 마스크를 벗어던지기 위해서, 억압된 생명 에너지의 기원을 되찾아, 그곳에 진리와 환상의 갈들을 너머에 있는 황금시대로 나아가는 지혜의 항구가 놓여 있을 것이다.

장영환
(국문 4)

• 외모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외모가 자신의 진로에 영향 미칠 것 80.96%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가"는 질문에 '보통'이라는 대답이 78명 53.06%로 가장 많았다. 자신의 외모에 대해 많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거나 심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각각 12명 8.16%, 5명 3.06%로 대부분의 학생들은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평균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모가 대인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주 그렇다'가 20명 13.60%, '그렇다'가 54명 36.73%, '보통'이 53명 36.05%를 차지, 전체 설문 인원의 80.28%가 외모와 대인관계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4명으로 16.32%,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5명으로 2.72%에 불과했다.

자신의 외모가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학생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렇다'는 대답이 54명 36.73%로 가장 많았고 '보통'이 53명으로 36.05% '아주 그렇다'가 12명으로 8.16%를 차지, 80.96%가 외모가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24명으로 16.32%, '전혀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4명으로 2.72%였으며 부정적인 대답을 보인 인원은 전체의 19.04%였다.

그러나 성형수술에 대해서는 별로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경제적인 부

담이 없다면 당신은 성형수술을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42.85%에 해당하는 63명의 학생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으며 '아주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51명으로 34.69%나 되었다. '아주 그렇다'는 대답과 '그렇다'는 대답은 각각 7명, 16명으로 전체의 51.64%에 지나지 않았다.

외모와 성격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양분

되는 의견이 나타났다. 그렇다는 대답이 47명으로 31.97%를 차지하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는 대답도 52명으로 35.37%를 차지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따져볼 때 상관있다는 쪽은 37.41% 상관없다는 쪽은 41.49%로 상관없다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 보통이라고 답한 경우는 31명으로 전체의 21.08%를 차지했다.

(취재부)

1. 자신의 외모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6%	19.04%	53.06%	16.32%	3.40%

2. 외모가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2.72%	13.60%	36.73%	36.05%	16.32%

3. 자신의 외모가 앞으로의 진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8.16%	36.73%	36.05%	16.32%	2.72%

4. 외모와 성격이 연관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5.44%	31.97%	21.08%	35.37%	6.12%

5. 경제적인 부담이 없다면 당신은 성형수술을 하시겠습니까?

아주 그렇다	그렇다	보통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4.76%	10.88%	6.80%	42.85%	34.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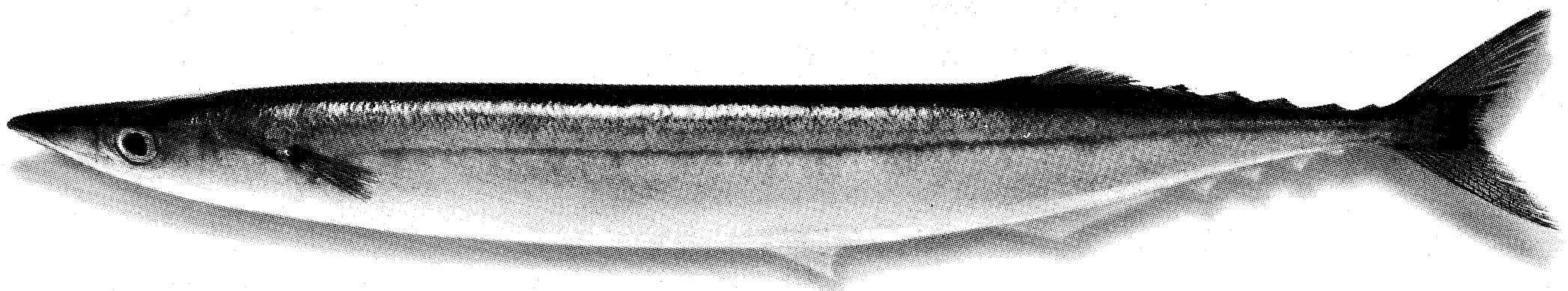
설문인원 서울·수원캠퍼스 학생 147명
남자 84명 여자 63명



▲벌거벗은 미녀들
우리나라의 미인대회는 무려 3백여개.
아가씨 미인대회에서 아줌마 미인대회까지
춘향이 부터 고추아가씨까지.
1년 365일 사흘에 한번씩 새로운 미인이
태어난다.

'김씨 아줌마네' 저니까!

경희대학교 개교 48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로 20년째, 김씨 아줌마는 요즘도 새벽3시면 수산시장에서 가장 신선한 생선을 가져다 놓습니다. 그날 팔다 남은 생선은 다음날 팔지 않는다는 자신과의 약속도 굳게 지키고 있습니다. 장모님은 이 동네에서 몇십년째 사십니다만 다른 생선가게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김씨 아줌마네 생선은 신선하다는 믿음, 바로 그것이 20년 단골의 이유입니다.

작은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큰 믿음은 시작됩니다. 쌍용은 그동안 쌓아온 믿음을 소중히 기꺼 자신과의 약속, 고객과의 약속, 사회와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최고를 만듭니다

